

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한 직업탐색행동 유형별 특성 분석

이 현 구¹⁾ · 하 은 호²⁾

요 약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KEEP2)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학생의 직업탐색행동 양상에 따른 잠재집단을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개인요인과 대학요인을 분석하였다. 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하여 직업탐색행동 경험여부를 분석한 결과, '소극집단(64.4%)', '중간집단(18.5%)', '분야탐색형집단(13.5%)', '적극집단(3.6%)'의 4개 집단이 가장 최적화된 집단의 개수로 나타났다. 잠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대학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한 결과, '소극집단'을 참조집단으로 했을 경우 성별과 학교만족도에 따라 '중간집단', 자기이해, 사회경제적배경, 학교만족도에 따라 '분야탐색형집단', 자기이해, 삶에 대한 만족도, 학과만족도에 따라 '적극집단'에 속할 확률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조집단을 '중간집단'으로 설정할 경우 사회경제적 배경, 자기이해에 따라 '분야탐색형집단', 자기이해, 삶에 대한 만족도, 학과만족도에 따라 적극집단에 속할 확률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조집단을 '분야탐색형집단'으로 설정할 경우 삶에 대한 만족도, 학과만족도에 따라 적극집단에 속할 확률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학생 개인의 환경·심리적 변인과 대학교 안에서 무엇을 인식하고 경험하는지에 따라 직업탐색행동의 양상이 달라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직업탐색행동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후속연구를 제언하였다.

주제어: KEEP, 직업탐색행동, 대학생, 잠재집단분석(LCA), 로지스틱 회귀분석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직업을 탐색하는 행위는 대학생 시기와 함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기이며, 직업탐색은 노동시장에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에 속한다. 대학생 시기에는 진로 탐색을 통해 자기에 대한 이해와 환경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구체적인 진로목표 설정 및 계획을 수립한다(Sugalski & Greenhaus, 1986). 서울대학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생활 중 대학생이 고민하는 문제 1순위는 진로 및 직업선택과 관련된 문제, 2순위는 공부 및 성적과 학습문제, 3순위가 심리적 문제로 나타났다(강상경, 2019). 대학생의 진로 고민은 졸업 후에도 재학 중 가지고 있

1)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원

2)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원

던 진로 선택에 대한 고민과 직업 자체의 불안정과 이직 여부 등 그 범위를 넓혀가며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기업에서는 인재채용 규모를 축소하고 있으며, 학점과 스펙은 기본이고 직무역량까지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대학생들의 진로 고민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17). 교육부 및 정부 부처들이 대학들의 성과지표로 취업률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대학들의 취업지원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써 인식되고, 이에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진로 교육에 대한 책무성이 가중되고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더불어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의 여파로 대학생들의 진로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가중되었고, 이에 따라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수행되어야 하는 행동이나 진로 결정 후에 실천해야 하는 준비행동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업탐색행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추적이 선행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대학생들의 진로 함양을 높여주기 위한 변화와 대책이 요구된다.

대학은 코로나 세대라고 자칭하는 대학생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발생하는 심리 정서적인 문제와 더불어 진로 고민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역할이 중요해졌다(이미영, 2022). 여러 차례의 서류전형과 면접탈락으로 취업정보 탐색에 지쳐있는 청년 실업자들은 취업결정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패에 대한 공포, 다른 사람의 삶에 자신의 의사결정이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중요한 타인들의 영향, 모든 일에 완벽하려는 욕구, 조급한 결정을 내리려는 성급한 결정 내리기, 다양한 분야에 대해 관심과 능력을 보여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여도 만족할 수 없다는 자기기대, 의사결정에 대해 미루는 우유부단, 선택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다(안관영, 2005).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은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와 진로에 대한 불안을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심리 정서적인 문제와 주변 환경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학생들의 진로고민은 취업문제로 연결되면서 대학 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의 대학들은 졸업생의 취업률 문제를 배제할 수 없고, 이를 위한 진로교육과 지도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실제 대부분의 대학들은 진로·취업 담당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학생들에게 진로탐색 및 결정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학생들은 대학교 재학 4년간 취업을 위한 준비로써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외부활동, 봉사활동, 역량강화 프로그램, 비교과 프로그램, 현장실습, 일학습병행제, 공모전 참여, 자격증 대비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박성열 외, 2022).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대학생들의 진로 고민과 취업문제가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만이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일 수 없다는 한계점이 드러난다.

대학생의 직업선택에 대한 고민은 진로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포함되며, 직업세계에 진입하기 전 이행되는 준비행동의 일환으로, 진로준비행동, 취업준비행동, 직업탐색행위에 대한 양상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였고, 직업탐색행위를 본 연구의 핵심변수로 나타내고자 한다.

그동안 대학생의 진로 관련 및 직업탐색행동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직업

탐색행동 연구는 직업탐색행동이 성공적인 취업가능성과 속도를 증가시키며, 직무적합도, 직무 만족, 조직몰입 등에 유의한 정적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Blau, 1993; Saks & Ashforth, 1997; 노연희 외, 2005). 직업탐색행동 관련 연구는 개인 명확성의 부재, 우유부단함과 같은 심리적 요소에 주목하였다. 임성우 외(2021)의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이 진로 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현정과 김기석(2008)의 연구에서도 우유부단성은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조중현, 윤선아(2022) 연구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진로구체화 행동에 있어 진로·취업 관련 수업 및 특강 수강과 인터넷 정보 탐색의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자신에 대한 명확성 이해와 진로에 대한 결단력의 필요를 강조했다. 또한 진로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환경적 변인 중 대인관계 가운데 타인의 존중과 관심을 받으며, 자신이 필요할 때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긍정적 자원인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결정 및 진로탐색행동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장현지, 홍아정, 2014).

실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교과 및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진로 이론들에서 대학생 시기는 직업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활동과 실습이나 인턴십 등 직접적인 체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한 과업의 시기를 지난다고 본다(Hirschi, 2012). 권양이(2017)의 연구는 일터차원의 멘토링보다는 대학차원의 멘토링 기능에 주목하였고, 멘토링 횟수보다는 멘토와 형성된 관계의 질이 멘티의 심리사회적인 면과 직업탐색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나타냈다. 류정희(2014)의 연구는 진로장벽과 대학생활적응 관계에서 교수친밀감이 긍정적 변수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진로장벽의 부정적인 영향들을 해소시키며, 자기이해의 확보와 정보 전달의 효과성을 강조한다.

이 밖에도,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교 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의 직업탐색행동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일관적인 결과를 보여주면서도, 결과 면에서도 개인 내적 요인 위주로 너무 치중되었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개인 차원이나 대학 차원에서 자신감 함양과 취업문제 해결에 대하여 나름의 지표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는 직업탐색행동 변수의 만족도를 척도화하거나 행동의 빈도만을 분석하였지만, 직업탐색행동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거나 개인이 스스로 탐색하는 활동,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거나 오픈된 소스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등 개인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 직업탐색행동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어떤 요인이 직업탐색행동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KEEP2)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학생의 직업탐색행동 양상에 따른 잠재집단을 분석하고, 최적화된 집단을 추출한 뒤 이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개인요인과 대학요인을 구분해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직업탐색행동 경험 여부에 대하여 잠재집단분석(LCA: latent class analysis)을 실시하고 직업탐색행동 경험 양상에 따른 잠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개인 요인과 대학요인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직업탐색행동 잠재집단은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되며 분류된 잠재집단의 특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직업탐색행동 잠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개인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대학생의 직업탐색행동 잠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요인은 무엇인가?

II. 선행연구 검토

1. 직업탐색행동의 정의 및 유형

직업탐색행동(Job Search Behavior)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기 앞서, 보다 명확한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과 취업준비행동(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진로준비행동이란 개인의 진로와 관련된 인지나 태도 차원을 넘어서 구체적인 행위 즉,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동이며, 진로결정 이후에도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의미한다(김봉환, 1997). 그리고 합리적인 진로 결정과 진로 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여기에는 정보수집능력, 필요능력 및 경력 갖추기, 목표설정과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 등이 포함된다(김봉환, 1997). 취업준비행동은 이제 경에 의해 처음으로 구체화된 개념으로 졸업 후 직업을 얻기 위해 준비해 나가는 일련의 구체적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김윤중, 2015; 부기철, 임준현, 2022). 직업을 준비하거나 취직하여 적응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행동 혹은 당면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취업준비행동을 정의하였다(어윤경 외, 2011). 마지막으로 직업탐색행동은 직업을 준비하고, 취직하여, 적응하기 위해서 혹은 그 과정에서 이용되는 개인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다양한 인지적, 행동수준의 활동을 포함한다(Blau, 1993). 이상의 세 가지 개념을 종합해보면 직업탐색행동, 취업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 순으로 행위에 있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양상을 보이며, 각각의 독립적인 준비행동으로 보이면서도 직업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바라봤을 때, 상호밀접한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핵심변수인 직업탐색행동은 취업성과의 핵심적인 영향요소이며, 진로준비행동 및

취업준비행동과 상호 밀접한 관계로 나타냄으로써 좀 더 포괄적으로 결과 양상을 나타내고자 한다.

직업탐색행동은 직업을 준비하고 취업을 성공하여 잘 적응하기 위해서 또는 그 과정에서 이용되는 개인과 직업세계의 환경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려는 다양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양기중, 2015). 직업탐색의 선두자인 Blau(1993, 1994)는 직업탐색행동에는 구분되는 두 가지의 국면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을 ‘준비적(예비적) 직업탐색행동(preparatory job search behavior)’과 ‘활동적(본격적) 직업탐색행동(active job search behavior)’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준비적 직업탐색행동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신문, 잡지, 구인, 인터넷 검색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직업 관련 원천을 확보하고 내가 원하는 직무에 필요한 자격취득 및 경력을 쌓는 단계로서 활동적 직업탐색행동을 하기 전의 활동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활동적 직업탐색행동은 실제로 탐색에 몰입하는 것으로 공공/사설 취업알선기관, 학교의 취업지원센터 등을 찾아가 구체적으로 원하는 회사를 정하고 원서제출 일시 등을 알아보는 활동 등을 포함한다. Blau(1994)는 직업탐색행동을 탐색기간 중 순차적이면서 체계적으로 변화하는 단계를 따르는 것으로서 주장하였고, 직업탐색행동을 초기에는 예비적이면서 계획적인 단계로 시작하여 적극적으로 집중적인 단계로 전개되며 원하는 직업을 얻지 못하면 다시 초기단계로 돌아가게 되는 직업탐색 행동의 순차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구직에 실패하여 초기단계로 되돌아간다고 해서 직업탐색행동이 단순한 반복 작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결과를 통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직업탐색행동을 하는 구직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구직자들은 직업탐색기간 중 보다 효과적이고 확률이 높은 방법을 학습하기도 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탐색방법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게 된다(Barber et al., 1994). Schwab 등(1987)은 대처행동의 일환으로서 직업탐색행동을 파악하고, 직업탐색 모형에서 새로운 직업의 획득이나 취업의 성공여부는 취업정보의 확보를 위하여 투입한 노력과 그러한 정보를 가공하여 가능한 직업을 탐색하는 노력 정도의 함수라고 예측함을 나타냈다.

하위요인으로서 각각의 탐색행동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지만, Blau(1994)는 두 가지 직업탐색행동이 별도의 요인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Blau(1993, 1994)의 직업탐색행동과 자발적 이직 의도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에서는 준비적 탐색 행동은 자발적 이직의도와 관계가 없었지만, 활동적 탐색행동은 자발적 이직의도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Saks와 Ashforth(1999)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종단 연구를 실시한 결과, 4학년 2학기 때의 활동적 탐색행동은 졸업 때의 취업상태와는 관계가 있었지만, 준비적 탐색행동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가지의 국면이 구분되는 것임을 보여주면서 각각 단계에서 취업 성과와 긍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그러나 Blau(1994)는 이 두 가지 하위 탐색행동이 구체적인 구직 경로를 확인해주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2. 직업탐색행동 관련 변인

직업탐색행동은 많은 연구를 통해 실제 취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상한 바와 같이 직업탐색에 대한 노력이 클수록 취업이나 직업을 얻는 것과 같은 긍정적 결과를 초래함을 알 수 있다(Feldman, 2003).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취업준비 부족에 대한 부담감과 불확실성 그리고 직업정보탐색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취업과 연관된 정보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더 나아가 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창훈, 강낙중, 2011). 오랫동안 직업탐색행동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은 이유는 직업탐색행동이 성공적인 취업가능성과 속도를 증가시키며, 직무적합도,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에 유의한 정적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다(Blau, 1993; Saks & Ashforth, 1997; 노연희·장재운, 2005; 이지영·장재운·김명언, 2005). 직업탐색에 관한 연구들은 취업의 질보다는 취업의 가능성과 속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Kanfer et al., 2001; Wanberg et al., 1999; Werbel, 2000). Wanberg 등(1999)의 연구에 따르면 직업탐색의 강도가 취업성과와 관련을 보였지만 취업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직무만족이나 승진 및 이직 의도와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이상훈, 윤천성(2016)의 연구에서의 직업탐색행동은 조직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취업을 위해 단순한 직업정보를 습득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행위가 업무수행과 조직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주변 친지와 같은 인적네트워크도 직업탐색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나타냈다(이병훈, 2002; Kirschenbaum & Weisberg, 1994).

본 절에서는 직업탐색행동 관련 변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나타내면서도, 개인 차원과 대학 차원으로 구분하여 관련 변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가) 개인 차원

직업탐색에 대한 연구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직업탐색행동은 대체로 개성이나 개인적 차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한다. Gordon 등(1986)은 개인들의 진로결정과 직업탐색행동에 대한 다양한 변인(흥미, 가치, 능력, 욕구, 자아개념, 성숙도, 동기, 의존성, 대학수준, 독단성, 불안, 사회경제적 수준, 성, 사회 도덕적 태도, 부모들의 수압, 학교성적, 방과후 활동, 부모의 교육수준, 생애 목표와 포부, 성취도, 직업정보 등)들을 나열하였고, Watt와 Rumsey(1996)의 연구에서는 직업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개인적 변인(구직 효능감, 고용몰입, 성실성)과 상황적 변인(구직에 대한 사회적지지, 경제적 곤란도, 미취업에 대한 부정성)으로 구분해 직업탐색행동간에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실성과 구직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직업탐색행동과 유의미하다고 나타났다.

기존 개인 성향 위주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니, 우유부단한 성격과 자신에 대한 이해(명확성) 부족이 직업(진로)탐색에 많은 영향력을 가진다고 보고되었다. 이현정, 김기석(2008)의 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이 직업탐색행동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 탐색해본 결과, 진로미결정 요인(우유부단성, 직업정보부족) 중 우유부단성은 예비적 탐색행동에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정보부족은 예비적 탐색행동과 적극적 탐색행동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노연희, 장재윤(2005)의 연구에서도 자기이해부족과 우유부단성격이 개인-직무 적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유부단성격은 개인-조직 적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유부단성격 요인에 대한 연구(이현정·김기석, 2008, 노연희·장재윤, 2005, 유승혜, 2011)가 유의미하게 확인됨으로써 자기 주장성이 부족하고 직업탐색행동에 소극적으로 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임성우 외(2021)의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심리자본은 진로준비행동에 많은 영향력을 시사한다.

직업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량 수준과 직업이 요구하는 조건(인재상)이 부합되어야 성공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다. 방하남 외(2001)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지위 획득 과정에서 부모의 학력이 본인의 지위 획득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보고된다. 가정의 경제적 능력은 자녀의 교육수준 및 다양성과 즉각적으로 가결되고 있는데, 채창균 외(2009)의 연구에 의하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취업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나타났으며, 황여정, 백병부(2008)의 연구에서는 가구소득과 부모 학력이 대졸자의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는 부모의 학력과 가계소득과 같은 귀속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양정호(2004)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일반계고 학생보다는 실업계고 학생이, 졸업 후 진학보다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대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참여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유사한 연구맥락을 보여주는데 반해, 임현정 외(2015)의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고, 가정의 여건보다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인식, 태도, 기대 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점에서 부모의 경제력을 별개로 부모의 관계 및 사회적지지가 더 중요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직업탐색행동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연구는 비교적 많은 편은 아니다. 남녀간의 성별 차이에 대한 주제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순 있지만, 패널조사를 활용한 연구들은 인구통계학적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Kanfer 외(2001)의 연구에서는 직업탐색정도가 남성이 여성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재취업자 집단보다 대학 졸업예정자와 같은 신규 직업탐색자 집단에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광영(2006)의 연구에서는 지방대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예비적, 적극적 직업탐색행동이 높게 나타났고, 윤미숙(2017)의 연구에서는 전문대생의 경우 연령이 낮고 남성일수록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이 높았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적극적 직업탐색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구의 특성과 필요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성별에 따른 구성원의 행위와 태도의 차이는 주로 남녀 간의 성향의 차이에 기

인한다는 안관영(2005)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개인 명확성 부족과 우유부단함 같은 심리적 요인들은 직업탐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탐색에 대한 흥미, 관심 및 직업탐색 의지를 높여주기 위해서 진로 및 취업 멘토링 또는 타인과의 교류를 통한 체험활동 즉, 채용정보 습득이나 사회적 지지와 같은 개인 명확성 함양이 필요하며, 학과 차원에서도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자기명확성에 대한 진로장벽을 제거해줘야 한다.

나) 대학 차원

대학생들의 성공적인 진로탐색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노력과 자격이 갖춰져야 한다. 보다 정확한 정보 입수 및 자료 분석을 위한 전문 취업센터 및 주변인들과의 상담 과정, 자신이 원하는 일과 관련된 경험을 쌓음으로써 자신의 취업가능성을 높여나가는 노력 등이 요구된다(이제경, 김동일, 2004). 김수경, 안도희(2020)의 연구에서는 학년 간 취업스트레스는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높게 나타났고, 진로장벽의 자기 명확성 및 정보 부족, 직업정보 부족, 신체적 열등감 요인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진로교육 경험, 교사 및 교우관계, 독서, 교내외 활동 참여 등이 중요하다고 보고되었다. 조중현, 윤선아(2021)의 연구에서 진로구체화를 위한 자기구체화 행동으로 ‘진로·취업 관련 수업 또는 특강에 참여(32.1%)’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업구체화 행동으로는 ‘인터넷 정보 탐색(49.4%)’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에서 우유부단함 극복과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대학 내 진로·취업 관련 수업 개설이나 전문가 강사 초청과 같은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대학 차원에서의 진로 및 취업프로그램은 학교 환경 및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진로교과목 운영을 통한 멘토링, 취업 상담, 해외인턴십, 현장실습, 취업박람회, 취업컨설팅, 인턴 기회 제공, 자격증 등 다양한 취업 및 비교과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남재우, 최영근(2022)의 연구에서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대부분 보통 이상의 유용성이 나타났는데, 차원별로는 자격증, 자격지원, 해외, 특강, 상담, 기업연계 관련 프로그램 순으로 유용성을 높다고 나타냄으로써, 신규 프로그램 개설 시 기업연계 특강, 상담 관련 프로그램을 우선 기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학에서의 진로교육은 교육 정보 제공, 개인맞춤형 특성을 고려한 직업 제공, 직업탐색 기술 및 의사결정 훈련 등의 내용들이 제공되어 왔으며, 비교과 교육에서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거나 멘토링 프로그램이 활용되었다(이미영, 2020, 2022). 최근 대학생 멘토링 연구는 권양이(2017)의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일터차원의 멘토링보다는 대학차원의 멘토링 기능에 주목하고 있으며, 멘토링 횟수에 따라 대학생들의 예비적 직업탐색행동과 적극적 직업탐색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순한 횟수가 아닌 멘토와 형성된 관계의 질이 멘티의 심리사회적인 면과 경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Renn et al.(2014) 연구에

서는 경력 지원 멘토링의 조연과 경력 코칭이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을 찾을 때 필요한 자신감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직업탐색행동이 지체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감 향상과 직업탐색행동에 더 탄력성을 부여해 줄 수 있음을 나타냈다. 임현정, 김난옥(2019)의 연구에서 수업참여가 활발하고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 내 진로 관련 프로그램의 수강횟수 및 교수와의 진로상담횟수, 취업준비경험이 많을수록 진로행동 수준이 높았다는 점을 나타냈다. 임현정 외(2015)의 연구에서는 진로교육에 대한 참여 정도와 진로성숙도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미친다고 나타냈지만, 실제 대학생의 진로지도 상담의 참여 수준은 미미하다는 점에서 대학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상담 프로그램 구축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대학들은 학생들의 경력개발 증진을 위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준다. 센터에서의 상담은 주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매칭되는 진로 코칭의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진로상담 집단 프로그램이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중현, 윤선아(2021)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행동 실현에 있어 무엇이 필요하고 중요한지 살펴본 결과, 대부분 진로상담 집단프로그램이 도움된다고 응답하였으며, 김신애, 조항(2020)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학술지에 발표된 진로상담 집단 프로그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로상담 집단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수현 외(2019)의 연구에서는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 취업처 정보제공, 인적성 코칭, 기업 탐방이 취업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취업처 정보제공이 취업결정 요인에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처치로 진로준비행동 수준의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형국, 2007; 임은수, 2012).

전반적인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감은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대학 차원에서는 사회적지지의 일환으로 교수 상담 및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 직접 교수를 대면하는 상황은 학생이 강의를 수강하는 것 외에는 흔히 일어나는 편은 아니며, 학생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과 내부적으로 개별 상담 시간 및 행사를 통해서만 빈번히 이루어지는 편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상담경험 여부에 따라 학교 적응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방인자(2018)의 연구에서는 직접 교수자가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해보니 상담경험 여부는 대학 적응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지만 대신 상담 횟수가 많아질수록 상담 만족도 평균이 높아지는 점에서 상담 운영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학생들은 취업 상담지도 및 취업활동, 졸업 후에 사회생활, 인생 상담 등 졸업 후에 대한 지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류정희(2014)의 연구는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장벽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봤는데, 진로장벽과 대학생활적응 관계에서 교수친밀감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했다는 점에서 교수친밀감이 긍정적 변수임을 시사하였고, 교수상담을 통해 진로장벽의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생생활적응과 교수에 대한 정서적 애착을 가짐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이나 정보 전달 효과가 높아져 정보원이 제공하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통해 신념, 태도 혹은 행동의 변

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유정화(2022)는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보다 진로준비행동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시기는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하기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및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해주면서 강의 개설을 통해서도 탄력적인 진로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윤영란(2008)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효과적인 진로지도 방안에 대해 탐색하였는데, 진로교과목 수업을 수강함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이 향상되었고, 진로정체감과 진로경정수준 또한 의미있게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진로준비행동은 통제집단을 제외한 모든 실험집단에서 의미있는 향상을 보였고, 진로집단상담, 활동중심 진로교과목 수업, 강의중심의 수업 모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났다. 주석진(2020)의 연구는 플립러닝을 활용하여 대학생 전공 진로지도 교과목의 효과분석을 분석하였는데, 전공 진로지도 교과목을 운영 후, 진로준비행동의 변화수준을 살펴보니 동일집단 내 진로준비행동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과목 수강 여부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정경숙, 김동원(2021)의 연구에서는 진로교과목 수강 유무에 따라 진로준비행동($F=438.08$, $p<0.001$)과 전공만족도($F=461.45$, $p<0.001$)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진로교과목 수업은 많은 대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진로지도가 가능하며, 이를 학점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생 진로조력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윤영란, 2008).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인터넷 문화가 급격히 발달되고 진로정보망의 확대, 진로개발에 대한 측정 방법도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해졌다.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진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면서, 이러한 정보들을 프로그래밍하여 진로 습득에 있어 사용자들에게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주었다. 다양한 진로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진로개발에도 탄력성이 부여됐는데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진로심리검사, 심리유형검사, 기업경영전략검사부터 진로교육자료, 온라인 직업 선호도 검사, 진로 정보 사이트의 탐색, 흥미 작업에 대한 정보 수집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임은미, 김현진(2002)의 연구에서는 진로정보탐색 프로그램을 실시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비교해본 결과, 진로자기효능감과 그 하위영역(목표설정, 계획수립, 직업정보탐색, 자기평가)에서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조규판, 주희진(2009)의 연구에서는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 및 하위영역인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의 모든 영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대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격과 적성, 흥미와 능력에 대해 파악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손영민(2014)의 연구는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집단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나타났고, 자기이해와 직업능력 향상 등의 진로준비행동 또한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활용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높아지며, 개인 성취수준과 성격유형에 맞게 진로준비를 할 수 있고 자신의 강단점을 파악하여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나타낸다.

학생의 대학 생활만족도는 학과(전공)만족도와 학교만족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박대성(2014)은 보건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학과만족도(적성학습만족, 진로직업만족, 대인관계만족)가 진로준비행동(직업탐색행동, 취업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학과만족도 요인 중 적성학습만족이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진(2017)의 연구에서는 학과만족도가 직업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교과만족이 직업탐색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창균, 김태기(2009), 박대성(2014) 등의 연구에서 학과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과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이는 대학생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탐색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점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때와는 달리 대학생의 경우 본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많은 변화와 도전,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심리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학교생활 만족도가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학생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데 정적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행복감, 학업적 성취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나종민 외, 2017). 대부분 선행연구에서 학교생활 만족도는 진로성숙도에 유의하거나 긍정적인 효과인 결과로 나타났는데, 청년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최진수, 정혜원(2021)의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만족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선행연구들을 종합해서 살펴봤을 때, 집단의 표본 특성과 집단 대상의 변수들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설문 문항 구성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수 있었다.

본 절에는 직업탐색행동 관련 영향요인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를 통해 진로 및 취업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다수 발견되었고, 그 중 대표적으로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직업탐색행위가 이행되기 위한 요인은 개인의 명확성, 사회적지지, 직업 채용 정보 등이 나타났다. 진로 및 취업에 있어 우유부단함 같은 심리적인 요인은 직업탐색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냈고, 사회적지지를 통해 개인의 명확성을 확보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학교 차원에서도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직업탐색행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취업프로그램을 통한 자신감 향상과 직업 채용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III. 분석 대상 및 변수

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II(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2: 이하 KEEP2)의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KEEP2 조사는 1차년도 2016년에 국내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작하여, 2차년도(2017년), 3차년도(2019

년), 4차년도(2020년), 5차년도(2021년)를 추적 조사하였다. 5차년도에는 1차년도의 주된 패널이었던 고등학생들이 노동시장과 대학교로 진입하여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재수생, 군복무자 등 다양한 집단의 교육과 노동시장의 관계를 밀도있게 분석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5차년도의 조사대상은 1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학생 10,588명 중 삭제패널, 군입대, 사망, 원양어선, 승선 등 조사불능 패널을 제외한 8,976명으로 대학입학준비, 대학생활, 미래계획 등 패널조사 대상자의 교육활동 및 노동시장 진입 준비, 노동시장 진입 이후의 삶을 전반적으로 설문하였다. KEEP2 데이터의 경우 문항 응답여부에 따라 다음 문항 응답여부가 결정되는 스킵 패턴(Skip Pattern) 문항이 존재하여,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직업탐색행동 경험 여부에 답하지 않는 응답자를 제외하여 총 3,302명의 표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음 <표 1>은 분석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이다.

분석 대상의 성비는 남성보다 여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4-6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상태였으며, 연구 대상자 중 졸업을 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배경의 경우 응답자 부모의 월 소득 총액을 합산하여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적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계층의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인구통계학적 배경

구분		N	%	
성별	남성	900	27.3	
	여성	2,402	72.7	
현재 학력	2-4년제 전문대학	재학	593	18.0
		휴학	42	1.3
		중퇴	7	0.2
	4-6년제 대학	재학	2,376	72.0
		수료	3	0.1
		휴학	271	8.2
사회경제적계층	1차년도 설문시점	기초생활수급자	329	10.0
		차상위계층	1,167	35.3
		그 외	1,806	54.7
	5차년도 설문시점	기초생활수급자	104	3.1
		차상위계층	1,188	36.0
		그 외	2,010	60.9

* 사회경제적계층은 부모의 소득의 총합을 기준으로 구분

2. 연구 방법

가. 잠재집단분석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직업탐색행동에 관한 응답을 토대로 유사한 집단을 구분하여 최적화된 집단을 추출한 뒤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분석결과 직업탐색행동의 경우 진로탐색행동, 취업준비행동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으며, 행동의 정도를 척도화하여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주로 이뤄지고 있어 행동 여부에 집중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직업을 탐색하는 행동은 개인의 심리·정서적 요인과 대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 변수중심적 접근(Variable centered approach)에서 벗어나 개인의 직업탐색행동 관련 변인들의 경험 여부가 어떻게 통합되거나 유기적 관계를 지니는지 사람중심적 접근(Person centered approach) 방법을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 이하 LCA)을 활용하여 직업탐색행동의 양상에 따라 어떤 가치관 집단이 형성되는지 분석하고 어떤 심리·정서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등이 이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잠재집단분석(LCA)은 관찰된 응답 유형에 따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의 집단을 분석하는 방법이다(Collins & Lanza, 2010). 응답자들은 상호 배타적인 잠재집단으로 나뉘며, 관찰되지 않은 범주형 변수를 가정하는 혼합 모형을 통해 개인이 어떤 집단에 속하는지를 관찰된 변수의 분석을 통해 추론한다(Lanza & Rhoades, 2013). 군집분석과 달리 모형을 설정한 뒤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등 통계적인 절차를 통해 집단의 수를 결정하며, 확률을 중심으로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해석의 과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Vermunt & Magidson, 2002). 잠재집단분석의 기본 수식은 아래와 같다. i 는 개인, c 는 잠재변수, k 는 집단을 의미하는데, 종합하면 i 번째 개인이 잠재변수 c 에 따라 나뉘는 집단 k 에 속할 확률을 의미한다(Vermunt & Magidson, 2002).

$$P(y_i = 1) = \sum_{k=1}^K P(c = k) P(y_i = 1 | c =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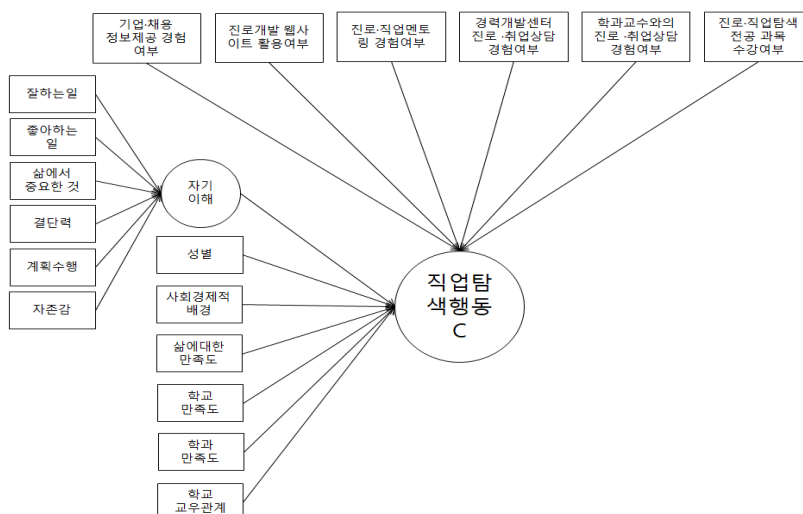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는 통계적 기준은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와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on)이다. AIC와 BIC는 값이 줄어들수록 더 적합한 모형임을 의미하여, 가장 낮은 집단을 최적화된 집단이라고 간주한다. AIC와 BIC의 값이 엇갈릴 경우에는 BIC 지수가 가장 낮은 양호한 모형을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추가적으로 표본 대비 최소 집단의 비율은 최소 1%로 설정하였다(Nylune et al., 2007). 분류의 질은 엔트로피(entropy) 지수를 확인하였다. 엔트로피 지수는 전체 표본에서 잠재계층들의 분류에 대한 전반적인 정확도를 요약한 수치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엔트로피 지수가 0에 근접할수록 분류의 질이 좋음을 의미한다.

나. 연구모형

본 연구 대학생의 직업탐색행동의 양상을 잠재집단 분석을 통해 확인한 뒤, 직업탐색행동 집단 유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먼저,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변수를 모두 포함한 조건모형을 바탕으로 잠재집단의 수를 비교하여 최종 모형을 결정했다. 이후 선행연구를 통해 직업탐색행동 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분석결과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잠재변수는 진로·직업탐색 전공과목 수강여부, 학과 교수와의 진로·취업상담 경험여부, 경력개발센터 진로·취업상담 경험여부, 진로·직업 멘토링 경험여부, 진로개발 웹사이트(포트폴리오) 활용여부, 기업·채용정보제공 경험여부가 있다. 이 중 진로개발 웹사이트(포트폴리오)의 경우 대표적인 예시로 대학교에서 진로개발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등의 이름으로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적을 관리해주는 사이트를 생각해볼 수 있다. 진로개발 웹사이트(포트폴리오)의 경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직업탐색행동과 관련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대학에서 학생의 진로·직업 및 취업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직업탐색행동 양상에 따른 잠재집단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한 독립변수는 자아개념, 사회·경제적 계층(1차·5차 설문시점), 학교·학과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 학교 교우관계가 있다. 분석에 활용되는 변수에 대한 설명은 다음 <표 2>에 제시하였다. 사회·경제적 계층의 경우 1차·5차 설문시점 당시 응답한 학부모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하여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과 그 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자기 이해의 경우 KEEP2 데이터에서 자신의 이해 정도를 묻는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삶에서 중요한 것’ 등 총 6문항을 평균하여 활용하였다.



[그림 1] 인구통계학적 배경



〈표 2〉 변수 설명

변수		변수설명	
직업 탐색 행동	기업·채용정보제공 경험여부	2020년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 경험 중 기업·채용정보제공 경험 여부를 묻는 이산변수	
	진로개발 웹사이트 활용여부	2020년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 경험 중 진로 개발 웹사이트 활용여부를 묻는 이산변수	
	진로·직업 멘토링 경험여부	2020년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 경험 중 진로·직업 멘토링 경험여부를 묻는 이산변수	
	경력개발센터 진로·취업상담 경험여부	2020년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 경험 중 경력 개발센터 진로·취업상담 경험여부를 묻는 이산변수	
	학과교수와의 진로·취업상담 경험여부	2020년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 경험 중 학과 교수와의 진로·취업상담 경험여부를 묻는 이산변수	
	진로·직업탐색 전공 과목 수강여부	2020년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 및 취·창업 교육 과목 중 진로·직업탐색 전공 과목 수강여부를 묻는 이산변수	
독립 변수	자기 이해	잘하는 일	자신에 대한 질문 중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있다’ 5점 척도
		좋아하는 일	자신에 대한 질문 중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알고 있다’ 5점 척도
		삶에서 중요한 것	자신에 대한 질문 중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 지를 알고 있다’ 5점 척도
		결단력	자신에 대한 질문 중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을 무리 없이 결정한다’ 5점 척도
		계획수행	자신에 대한 질문 중 ‘내가 계획한 것을 잘할 수 있다’ 5점 척도
		자존감	자신에 대한 질문 중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점 척도
	사회·경제적배경	1차·5차 설문시점 부모의 월소득을 합산하여 2016년, 2020년 수급자선정기준을 바탕으로 구분	
	학과만족도	2020년 12월 기준 소속 학과(계열, 학부, 전공) 만족도를 묻는 5점 척도 문항의 응답	
	학교만족도	2020년 12월 기준 소속 학교 만족도를 묻는 5점 척도 문항의 응답	
	삶에 대한 만족도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10점 척도 문항의 응답	
학교 교우관계	소속 학과(계열, 학부, 전공) 안에서 학생들 간 관계를 묻는 5점 척도 문항의 응답		

IV. 분석결과 및 해석

1. 잠재 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

연구대상자들의 잠재집단분석을 위하여 R 1.6.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R에서 제공하는 poLCA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4개 집단일 때 AIC와 BIC 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엔트로피 지수는 5개 집단일 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AIC와 BIC, 엔트로피 지수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개 집단을 가장 최적화된 집단으로 결정하였다. 4개의 잠재집단이 분류될 경우 집단별 비율은 13.5%, 18.5%, 64.4%, 3.6%로 최소 기준인 1% 미만을 보이는 집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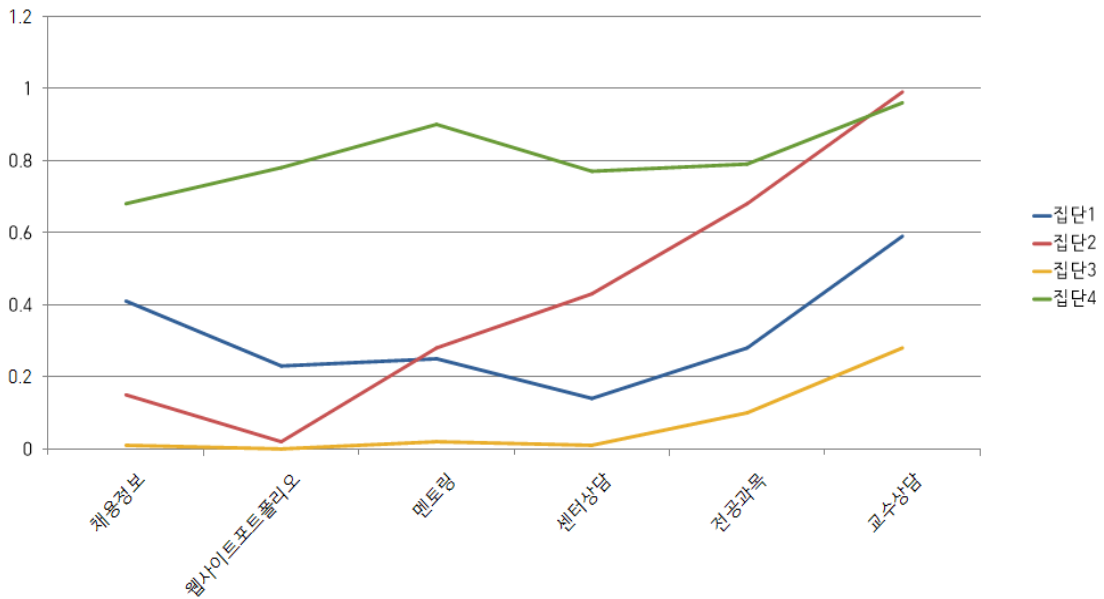
〈표 3〉 직업탐색행동 잠재집단 분류

분류기준		변수설명			
		2개	3개	4개	5개
정보 지수	AIC	16786.15	16676.52	16596.66	16599.66
	BIC	16865.48	16798.57	16761.19	16807.14
Entropy		0.684	0.667	0.659	0.586
집단별 비율	집단1	26.8%	4.2%	13.5%	34.2%
	집단2	73.2	36.5%	18.5%	18.9%
	집단3		59.3%	64.4%	8.0%
	집단4			3.6%	3.1%
	집단5				35.8%

잠재집단의 주요특성을 바탕으로 다른 집단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도록 집단명을 명명하기 위하여 잠재집단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다음 [그림 2]는 잠재집단별 직업준비행동 양상을 보여주며, <표 4>는 잠재집단별 각 설문 문항에 ‘예’라고 대답할 조건부 확률(Conditional probability)을 보여준다.

〈표 4〉 잠재집단별 조건부 응답확률

구분	사례수 (비율)	채용 정보	웹사이트 (포트폴리오)	멘토링	센터 상담	취업관련 전공과목	학과교수 상담
집단1	611 (18.5%)	0.411	0.232	0.259	0.145	0.285	0.594
집단2	447 (13.5%)	0.155	0.025	0.280	0.431	0.690	1.000
집단3	2,125 (64.4%)	0.018	0.00	0.027	0.011	0.107	0.289
집단4	119 (3.6%)	0.687	0.781	0.902	0.778	0.794	0.964



〔그림 2〕 직업탐색행동 양상에 따른 잠재집단

먼저, '집단3(64.4%)'은 모든 직업준비행동 변수를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소극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집단1(18.5%)'는 '소극집단'에 비해서는 직업준비행동을 경험해봤으나, '집단4'에 비해서는 직업준비행동이 부족하여 '중간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집단2(13.5%)'의 경우 채용정보, 웹사이트(포트폴리오), 멘토링의 경험여부는 '집단1'과 유사하게 낮으나 '센터상담', '취업관련 전공과목', '교수상담' 등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험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정보', '웹사이트(포트폴리오)', '멘토링'의 경우 취업, 직업 분야가 결정된 이후의 행동이며 '센터상담', '취업관련 전공과목', '교수상담'의 경우에는 직업 분야가 결정되기 이전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구분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집단2'의 경우 '분야탐색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 '집단4(3.6%)'의 경우 다른 세 집단에 비해 직업탐색행동을 경험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적극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별 인구통계학적 배경은 다음 <표 5>와 같다. 소극집단의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적극집단에서도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시점 사회·경제적 배경의 경우 중간집단에서 저소득층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차시점 사회·경제적 배경의 경우 저소득층 외 집단이 소극집단이 저소득층 집단에 비해 비율이 소극집단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간집단의 경우 저소득층 집단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배경에 따라 직업탐색행동 양상의 잠재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지 분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직업탐색행동 양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경제적 배경은 1차 설문시점, 5차 설문시점 모두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인구통계학적 배경

구분		소극집단		중간집단		분야탐색형집단		적극집단		X ² (P)	
		N	%	N	%	N	%	N	%		
성별	남	608	67.6	142	15.8	114	12.7	36	4.0	8.17 (0.043)	
	여	1,517	63.2	469	19.5	333	13.9	83	3.5		
사회· 경제적 계층	1차 시점	저소득층	831	64.3	257	19.9	157	12.2	47	3.6	5.226 (0.156)
		그 외	1,294	64.4	354	17.6	290	14.4	72	3.6	
	5차 시점	저소득층	951	63.6	292	19.5	200	13.4	53	3.5	1.870 (0.600)
		그 외	1,174	65.0	319	17.7	247	13.7	66	3.7	

*사회경제적배경은 부모의 소득의 총합을 기준으로 구분

2.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연구 대상자의 직업탐색행동 양상에 따른 잠재집단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 25버전을 활용하였으며, 먼저 ‘소극집단(집단1)’ 참조집단(reference group)으로 설정하여 다른 집단에 속할 확률을 비교한 뒤 같은 방법으로 ‘중간집단(집단2)’, ‘분야탐색형집단(집단3)’, ‘적극집단(집단4)’을 차례대로 참조집단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직업탐색행동 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독립변수는 자기이해, 성별, 사회·경제적 배경, 삶에 대한 만족도, 학교만족도, 교우관계, 학과만족도이다. 자기이해는 총 6문항의 하위요인으로 이뤄져 있으며, 각 하위요인이 직업탐색행동 양상에 따른 잠재집단 구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로 6문항의 하위요인을 평균하여 활용하였고, 신뢰도 분석결과 0.851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투입하는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분석결과 상관 계수가 모두 0.6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변수 간 상관관계

구분	자기이해	학과만족도	학교만족도	교우관계	삶에 대한 만족도
자기이해	1				
학과만족도	.333**	1			
학교만족도	.355**	.578**	1		
교우관계	.293**	.337**	.332**	1	
삶에 대한 만족도	.472**	.307**	.284**	.218**	1

**P>0.05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중 먼저 ‘소극집단(집단1)’을 참조집단으로 설정한 뒤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성별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중간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소극집단보다 중간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탐색형집단의 경우 사회·경제적 계층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차년도 설문시점에 저소득층이었던 학생들이 소극집단에 비해 분야탐색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시점인 5차년도 설문시점에는 저소득층 집단보다 저소득층 외 집단이 분야탐색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이해의 정도가 높을수록 소극집단에 비해 분야탐색형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변수의 경우 학교만족도가 높을수록 분야탐색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극집단과 적극집단을 비교해보면 자기이해의 정도가 높은 학생이 적극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소극집단에 비해

적극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변수의 경우 학과만족도가 높을수록 소극 집단에 비해 적극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대학 직업탐색행동 잠재집단의 예측변인(참조집단: 소극집단)

요인	변수		소극 VS 중간		소극 VS 분야탐색		소극 VS 적극	
			EXP(B)	SE	EXP(B)	SE	EXP(B)	SE
개인 요인	성별(1=여, 2=남)		0.763	0.108**	0.843	0.120	1.013	0.208
	사회·경제적 계층	1차 시점	1.078	0.152	0.652	0.168**	1.040	0.324
		5차 시점	1.062	0.151	1.415	0.163**	1.043	0.319
	자기이해		1.065	0.091	1.427	0.106***	1.886	0.193***
삶에 대한 만족도		0.958	0.031	0.996	0.036	0.844	0.061**	
대학 요인	교우관계		0.945	0.067	1.070	0.080	1.147	0.149
	학교만족도		1.249	0.078**	1.237	0.088**	1.061	0.155
	학과만족도		1.009	0.072	0.918	0.082	1.405	0.154**

*P<0.1, **P<0.05, ***P<0.01

다음은 ‘중간집단’을 참조집단으로 설정한 뒤 분야탐색형집단과 적극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분야탐색형집단의 경우 1차 설문 시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저소득층 집단이 중간집단보다 분야탐색형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자기이해도가 높을수록 분야탐색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집단과 비교해본 결과 자기이해는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고 있어 자기이해도가 높을수록 중간집단보다 적극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으며, 삶에 대한 만족도는 낮을수록 적극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변인의 경우 학과만족도가 높을수록 적극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대학 직업탐색행동 잠재집단의 예측변인(참조집단: 중간집단)

요인	변수		중간 VS 분야탐색		중간 VS 적극	
			EXP(B)	SE	EXP(B)	SE
개인 요인	성별(1=여, 2=남)		1.105	0.146	1.328	0.224
	사회·경제적 계층	1차 시점	0.605	0.202**	0.965	0.343
		5차 시점	1.332	0.197	0.982	0.338
	자기이해		1.340	0.126**	1.771	0.204**
삶에 대한 만족도		1.040	0.355	0.881	0.065*	
대학 요인	교우관계		1.132	0.094	1.213	0.157
	학교만족도		0.991	0.106	0.849	0.969
	학과만족도		0.910	0.098	1.393	0.163*

*P<0.1, **P<0.05, ***P<0.01

마지막으로 분야탐색형집단을 참조집단으로 한 후 적극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먼저 삶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낮아질수록 적극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며 학과만족도의 경우 높아질수록 적극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대학 직업탐색행동 잠재집단의 예측변인(참조집단: 분야탐색형집단)

요인	변수		분야탐색 VS 적극	
			EXP(B)	SE
개인 요인	성별(1=여, 2=남)		1.202	0.643
	사회·경제적 계층	1차 시점	1.595	0.349
		5차 시점	0.737	0.343
	자기이해		1.321	0.186
	삶에 대한 만족도		0.847	0.067**
대학 요인	교우관계		1.071	0.163
	학교만족도		0.857	0.171
	학과만족도		1.530	0.167**

*P<0.1, **P<0.05, ***P<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직업탐색행동 양상을 잠재집단 분석을 통해 확인한 뒤, 직업탐색행동에 관한 응답을 토대로 집단을 구분하여 유형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Ⅱ(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2: 이하 KEEP2)의 5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2016년(1차년도)에 국내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작하여, 2017년(2차년도), 2019년(3차년도), 2020년(4차년도), 2021년(5차년도) 추적 조사하였으며, KEEP 데이터의 경우 문항 응답여부에 따라 직업탐색행동 경험 여부에 답하지 않는 응답자를 제외하여 총 3,302명의 응답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적극적인 직업탐색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학과만족도와 학교만족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집단을 참조집단으로 설정할 경우 학교만족도가 높을수록 중간집단, 분야탐색형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과만족도가 높을수록 적극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간집단을 참조집단으로 설정할 경우와 분야탐색형 집단을 참조집단으로 설정한 경우 모두 학과만족도가 높을수록 적극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진로성숙도 등 진로 관련 심리적 변인과의 양적 관계를 밝힌 다른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나 기존의 연구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면,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학교만족도와 학과만족

도는 대학생의 직업탐색행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박대성(2014)은 보건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학과만족도(적성학습만족, 진로직업만족, 대인관계만족)가 진로준비행동(직업탐색행동,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학과만족도 요인 중 적성학습만족이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민주(2014)는 항공서비스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 중 교과만족이 취업상담활동에, 인식만족은 정보탐색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고, 김미진, 조우제(2016)도 항공서비스학과 재학생으로 전공만족도가 진로탐색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의진(2017) 연구도 학과만족도가 직업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일반만족과 교과만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학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학과 차원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과정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행동들을 취해 학생들의 진로·적성에 맞게 교과목에 내실을 기한다면 대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생활만족도는 학생이 학교생활을 이어나가는데 있어 전반적으로 느끼는 만족감의 정도를 의미한다. 박성열 외(2018)는 개인이 판단하는 학교생활만족도는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과 연결된 개인의 자존감과 같은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서명선, 외(2021)은 대학생활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물리적서비스(캠퍼스 설계), 교육서비스(교수진 수준), 행정서비스(생활 및 취업 관련 서비스 지원)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종민 외(2017)도 학교생활만족도는 학생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데 정적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행복감, 학업적 성취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며, 이는 행복감, 학업적 성취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반된 연구결과로 박성열 외(2022)는 학교생활만족도가 직접적으로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나타냈고, 최진수, 정혜원(2021)도 마찬가지로 학교생활만족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같은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의 특성(학년, 계열, 전공 등)과 문항 척도 구성의 차이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성별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중간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 성별의 경우 진로, 직업 준비와 관련된 변수들과의 일관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도 여성의 경우 소극집단보다 중간집단에 속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다른 집단에 속할 확률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조직구성원의 태도 및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연구는 비교적 많은 편은 아니다(이현정, 김기석, 2008). 그 이유는 남녀 간의 성적 차이에 대한 주제가 민감하다는 것이 주원인이다(Babin & Boles, 1998; Eagly, 1987). Kanfer 외(2001)는 직업탐색정도가 남성이 여성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재취업자 집단보다 대학 졸업예정자와 같은 신규 직업탐색자 집단에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관영(2006)은 지방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살펴봤는데, 지방대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예비적, 적극적 직업탐색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권해수(2014)는 호남권 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취업준비행동 차이를 검증한 결과, 취업준비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윤미숙(2017)은 전문대생을 대상으로 성별이 취업행동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진 않았지만, 연령이 낮고 남성일수록 예비적 직업탐색 행동이 높게 나타났고, 적극적 직업탐색행동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다른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가 진행되기 전 집단의 표본의 더 특색있게 표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성별 같은 변인은 직업탐색 전체와 각 하위요인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기이해의 정도는 직업탐색행동 양상에 따른 잠재집단의 특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기이해의 정도가 높을수록 소극적 집단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이해의 정도가 높을수록 소극집단에 비해 분야탐색형집단, 적극적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집단을 참조집단으로 한 후 분석한 결과에서도 자기이해의 정도가 높을수록 중간집단에 비해 분야탐색 행동, 적극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야탐색행동을 참조집단으로 했을 경우 적극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한 결과 자기이해의 정도는 센터상담, 교수상담, 전공과목수강 변수를 위주로 직업준비행동을 하는 분야탐색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탐색행동을 적극적으로 경험하는 적극집단에 속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현정, 김기석(2008)은 진로미결정이 직업탐색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탐색하였는데, 진로미결정 요인 중 우유부단성이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현희, 장재운(2005)도 자기이해부족과 우유부단성격이 개인-직무 적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중현, 윤선아(2022)는 대학생 진로 탐색 행동 요인을 반영한 설문조사를 통해 진로구체화 행동으로 ‘진로·취업 관련 수업 또는 특강 참여’와 직업구체화 행동으로 ‘인터넷 정보 탐색’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에서 우유부단함 극복과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Renn et al.(2014)는 경력 지원 멘토링의 조언과 경력 코칭이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을 찾을 때 필요한 자신감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직업탐색행동이 지체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감 향상과 직업탐색행동에 더 탄력성을 부여해 줄 수 있음을 나타냈다. 손영민(2014)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커리어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자기이해와 직업능력 향상 등의 진로준비행동이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판, 주희진(2009)는 에닝그램을 활용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 및 모든 하위영역(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학생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계획수행, 결단력 등의 자아개념을 확립하도록 돕는 것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직업탐색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집단 유형이 직업탐색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학과만족도와 학교만족도가 대학생의 적극적인 직업탐색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봤을 때, 학생 시기에 자신에게 맞는 진로나 직업을 탐색하고 목표를 세울 수 있

도록 대학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진로탐색의 기회를 넓혀 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직업탐색에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가능하게끔 다양한 취업 및 진로프로그램 개설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전공별 전공만족도를 포함하여 직업탐색행동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직업탐색과 학교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과만족도, 학교만족도와 직업탐색행동 간 선행 연구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직업탐색행동 집단 유형에 따른 요인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성별과 진로준비, 직업탐색행동 간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연구의 수가 거의 확보되지 않았으며, 연구결과 역시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중간 집단에 더 많이 속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인 안관영(2006), 권해수(2014) 연구를 포함한 노연희, 장재운(2005)의 연구는 여성일수록 준비적 탐색행동과 공식적 탐색행동을 적게 나타냈고, 여성이 남성보다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본 연구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직업탐색이 열악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소극적으로 직업탐색을 하는 요인에 집중하여 탐구해볼 필요가 있으며, 성별 차이가 직업탐색 및 직업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셋째, 자기 명확성 부족은 직업탐색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기이해는 직업탐색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진로적성을 잘 탐색할 수 있도록 대학행정기관이나 학과의 역할이 중요하다. 남재우, 최영근(2020)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에 대한 어려움을 가진다고 보고된다. 이렇게 대학은 학생들이 원하는 요소들이 잘 매칭하여 취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진로 정보 습득과 자기이해 함양을 위해 상호작용 위주의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강화해 학생들의 자긍심이나 효능감 개발을 증진시켜 직업탐색활동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직업탐색행동의 잠재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잠재변수 중 '진로개발 웹사이트' 변수가 집단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주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개발 웹사이트(포트폴리오 활용)를 대학교에서 진로개발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등의 이름으로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적을 관리해주는 사이트로 정의하였는데, 학생들은 이러한 웹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진로 및 직업 정보를 제공받고, 단기간 안에 자신의 진로성향을 빠르게 파악하여 직업탐색행동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한다. 임은미, 김현진(2002)은 진로정보탐색 프로그램 참여여부에 따라 진로자기효능감, 목표설정, 계획수립, 직업정보탐색, 자기이해 부분 유의하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조규관, 주희진(2009)의 연구와 같은 맥을 하였다. 최근 코로나19(COVID-19) 유행 사태를 고려해보면, 대학 차원의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를 참고하여 직업탐색행동을 채용정보제공, 웹사이트(포트폴리오) 활용여부, 멘토링 경험여부, 진로·취업을 위한 경력개발센터 상담여부, 진로·취업을 위한 학과교수와의 상담의 6가지 변수를 투입하여 직업탐색행동 양상의 잠재집단을 살펴보았으나, 보다 다양한 변수를 투입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직업탐색행동의 유형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여부와 공식적인 활동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반영하여 대학생의 직업탐색행동 양상을 다양하고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후속연구에서는 잠재집단별 취업 성과와 연결지어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5차년도 KEEP2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학생의 직업탐색행동 양상에 따른 잠재집단을 분석하고 잠재집단별 특성을 나누는 개인요인과 대학요인을 밝혔으나, 향후 조사될 KEEP2의 6차년도와 7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잠재집단별 학생들의 취업 성과를 추적·분석하여 직업탐색행동의 실질적인 효과를 밝힐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강상경(2019). 지속가능한 학생정신건강 서비스체계 구축 방안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권양이(2017). 진로 관련 멘토링과 대학생들의 직업탐색행동 간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30권 3호.
- 권해수(2014).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성격5요인, 역기능적 진로사고, 정서지능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간이해. 35권 2호.
- 김미진, 조우제(2016). 교육서비스품질이 전공만족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항공서비스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관광연구. 31권 8호.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수경, 안도희(2020).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예측 요인 탐색: 진로장벽, 취업스트레스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6권 3호.
- 김신애, 조항(2020). 대학생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연구동향 및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취업진로연구. 10권 2호.
- 김윤중(2015). 4년제 대학생의 취업목표설정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권 11호.
- 김창훈, 강낙중(2011). 청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기업실적과 일자리 공급의 연계 방안 연구. 한국경영공학회지. 16권 3호.
- 나종민, 박세진, 이기중(2017). 청소년이 인지하는 학교생활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 인문사회과학연구. 55권.
- 남재우, 최영근(2020). 대학생의 현장실습교육이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 진취성의 조절효과. 융합정보논문지. 10권 5호.
- 노연희, 장재윤(2005). 대학졸업자들의 진로미결정 및 직업탐색행동이 개인-직무 적합과 개인-조직 적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권 4호.
- 류정희(2014). 전문대학생들의 진로장벽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교수 친밀감의 매개효과 및 교수 전문성의 조절효과. 취업진로연구. 4권 2호.
- 박대성(2014). 보건계열 대학생의 학과만족도,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2권 10호.
- 박성열, 고주은, 주민호(2022).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학교생활만족도, 사회적지원, 진로탐색활동과 진로적응력 간의 구조모형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4권 2호.
- 박성열, 장윤숙, 주민호(2018). 대학생의 진로적응력과 진로결정 관련성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0권 1호.
- 방인자(2018). 상담경험이 대학생활적응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P대학의 상담지로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교양교육연구. 3권 1호.
- 방하남, 황덕순(2001). 노동과 복지의 연계를 위한 정책설계 및 실천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2001년 추계국제학술회의. 2001권 2호.
- 부기철, 임준현(2022).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취업준비행동, 구직준비행동 분석에 관한 연구: 일반



- 재학생과 취업장학금대상 재학생을 중심으로. 경영컨설팅연구. 22권 1호.
- 서명선, 정정희, 안성식(2021). 대학생들의 진로선택동기와 대학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11권 2호.
- 손영민(2014). 커리어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이 대학 저학년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육학연구. 20권 1호.
- 안곤영(2006). 지방대학 졸업예정자들의 직업탐색활동의 변화와 성격의 영향. 경영교육논총. 41호.
- 안관영(2005). 개인적 차이와 직업탐색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38권.
- 양기종(2015). 직업탐색행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관계 연구: 긍정심리자본의 매
개효과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정호(2004). 고등학생의 재학 중 아르바이트 참여요인 분석 - 청년패털조사의 위계적 일반화선
형모형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4권 1호.
- 어윤경, 김동일, 정여주, 이주영(2011). 대학생용 취업준비행동 검사 개발 및 타당화. 한국교육학연
구. 17권 3호.
- 유승혜(2011). 비서학전공 전문대학생들의 진로장벽과 취업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직업탐색 자기
효능감의 조절효과. 비서·사무경영연구. 20권 3호.
- 유정화(2022).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의 성격5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수-학생 상
호작용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취업진로연구. 12권 1호.
- 윤미숙(2017).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의 취업행동과 개인 및 조직 변인의 위계적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영란(2008). 진로집단상담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14
권 2호.
- 이미영(2020). 대학생 멘토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 교육 프로그램이 멘토의 대인 의사소통 능력,
인성,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8권 1호.
- 이미영(2022). 코로나19 시대 대학생의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멘토링 효과 연구. 인문사회21.
13권 1호
- 이병훈(2002). 구직활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동경제논집, 25권 1호.
- 이상훈, 윤천성(2016).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의 직업탐색행동과 조직사회화의 관계에서 인턴활동
만족도의 조절효과. 경영교육연구. 31권 4호.
- 이제경, 김동일(2004). 한국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발달적 특성. 청소년상담연구. 12권 2호.
- 이지영, 장재윤, 김명언(2005). 대학 4학년생들의 진로미결정, 직업탐색행동 및 구직 성과 간의 관
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권 1호.
- 이현정, 김기석(2008). 성격적 특성이 진로미결정과 직업탐색행동에 미치는 효과와 성별 조절효과.
산학경영연구. 21권 1호.
- 이형국(2007). 진로상담 기법을 활용한 진로교육 교과목 프로그램이 전문대학생들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효과 연구. 진로교육연구. 20권 3호.
- 임성우, 정현식, 송민선(2021). 대학생들의 긍정심리자본과 교수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
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권 4호.
- 임은미, 김현진(2002). 인터넷을 활용한 진로정보탐색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 자기효능감에 미
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18권.

- 임은수(2012). 커리어코칭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현정, 김양분, 김난옥(2015). 대학 입학전후 진로성숙 변화의 영향요인 탐색. 직업능력개발연구. 18권 3호.
- 장현지, 홍아정(2014).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성찰학습의 매개효과. 직업교육연구. 33권 2호.
- 정경숙, 김동원(2021). 간호대학생의 진로교과목 수강 유무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 차이. 디지털융복합연구. 19권 12호.
- 정민주(2014). 4년제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가 취업불안 및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항공경영학회지. 12권 1호.
- 정수현, 양주희, 임중혁(2019). 워라밸정책, 개인취업역량 및 대학취업지원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취업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충북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기술경영. 4권 2호.
- 조규판, 주희진(2009).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9권 2호.
- 조중현, 윤선아(2021).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대학생 진로인식 및 진로탐색행동과 요구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권 23호.
- 주석진(2020). 플립러닝을 활용한 대학생 전공 진로지도 교과목의 효과분석. 진로교육연구. 33권 1호.
- 채창균, 김태기(2009). 대졸 청년층의 취업 성과 결정 요인 분석. 직업교육연구. 28권 2호.
- 최진수, 정혜원(2021).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스트레스, 진로성숙도의 종단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권 24호.
- 한국고용정보원(2017). 대기업 인사담당자, 직무 연관성·잠재 역량이 취업문 열쇠.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8). 대학생의 취업에 대한 인식과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진로·취업 프로그램 요구사항.
- 한의진(2017). 대학생의 학과만족도가 직업탐색행동과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31권 7호.
- 황여정, 백병부(2008).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11권 2호.
- Babin, B. J., and J. S. Boles(1998). Employee Behavior in a Service Environment: A Model and Test of Potential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Journal of Marketing*, 62, 77-91.
- Barber, A. E., Daly, C. L., Giannantonio, C. M., & Phillips, J. M.(1994). Job search activities: An examination of changes over time. *Personnel Psychology*, 47, 739-766.
- Blau, G.(1993). Further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earch and voluntary individual turnover. *Personnel psychology*. vol 46, 213-330.
- Blau, G.(1994). Testing a two-dimensional measure of job search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9(2), 288-312.
- Cleveland, M. J., Collins, L. M., Lanza, S. T., Greenberg, M. T., &Feinberg, M. E.(2010). Does individual risk moderate the effect of contextual-level protective factors? A latent class analysis of substance use. *Journal of prevention & intervention in the community* ,38 (3), 213-228.

- Eargly, A. H.(1987).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A Social Role Interpreta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Feldman, D. C.(2003).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early career indecision among young adults.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13, 499-531.
- Gordon, V. N., Coscarelli, W. C., and Sears, S. J.(1986). Comparative assessment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learning and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7, 233-242.
- Hirschi, A.(2012). Callings and Work Engagement: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Work Meaningfulness, Occupational Identity, and Occupational Self-Efficac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9, 479-485.
- Kanfer, R., Wanberg, C. R., & Kantrowitz, T. M.(2001). Job search and employment: A personality - motivational analysis and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5), 837.
- Kirschenbaum, A. & J. Weisberg(1994). "Job search, intentions, and turnover: The mismatched trilog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4, 17-31.
- Lanza, S. T., & Rhoades, B. L. (2013). Latent class analysis: an alternative perspective on subgroup analysis in prevention and treatment. *Prevention science*, 14 (2), 157-168.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 (4), 535-569.
- Renn, R. W., Steinbauer, R., Taylor, R., & Detwiler, D.(2014). School-to-work transition: mentor career support and student career planning, job search intentions, and self-defeating job search behavior.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5(3), 422-432.
- Saks, A. M. & Ashforth, B. E.(1997).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job information sources, applicant perceptions of fit, and work outcomes, *Personnel psychology*, 50: 395-426.
- Saks, A. M., and Ashforth, B. E.(1999). Effects of individual Differences and Job Search Behaviors on the Employment Status of Recent University Graduat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 335-349.
- Schwab, D. P., Rynes, S. L., & Aldag, R. J.(1987). Theories and research on job search and choice. *Research in Personnel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5, 129-166.
- Sugalski, T. D., & Greenhaus, J. H.(1986). Career exploration and goal setting among managerial employees.
- Vermunt, J. K., & Magidson, J.(2002). Latent class cluster analysis. *Applied latent class analysis*, 11 (89-106), 60.
- Wanberg, C. R., Kanfer, R. & Rotundo, M.(1999). Unemployed individuals: motives, job-search constraints as predictors of job seeking and reemploy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4, 897-910.
- Wanberg, C. R., Watt, J. D., & Rumsey, D. J.(1996). Individuals without jobs: An empirical study of job-seeking behavior and reemploy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1(1), 76 - 87.
- Werbel, J. D.(2000). Relationships among Career Exploration, Job Search intensity, and Job Search Effectiveness in Graduat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7, 379-394.

❖ Abstract ❖

Characteristics Analysis of Job Search Behavior Types Using Latent Class Analysis

Lee Hyun-Gu, Ha Eun-Ho(KRIVET)

This study analyzed the latent group according to the pattern of job search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using the data of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Survey II (KEEP2) and analyzed the individual factors of students and university factors that affect it. As a result of analyzing whether or not they experienced job search behavior using latent group analysis, the four groups of 'negative group(64.4%)', 'intermediate group(18.5%)', 'field search group(13.5%)', and 'active group(3.6%)' were the most optimized groups. As a result of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analyze individual and university factors affecting potential groups, it was found that if 'negative group' was used as a reference group,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intermediate group', depending on gender and school satisfaction, field exploration group, self-understanding, life satisfaction, and department satisfaction. In addition, when the reference group is set as an "intermediate group",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the active group varies depending on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and self-understanding, life satisfaction, and academic satisfaction. The above results suggest that the pattern of job search behavior varies depending on the environment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of each student and what they perceive and experience in the univers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measures for job search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were discussed and follow-up studies were proposed.

Key words: KEEP, job search behavior, college student, latent class analysis, logistic regression